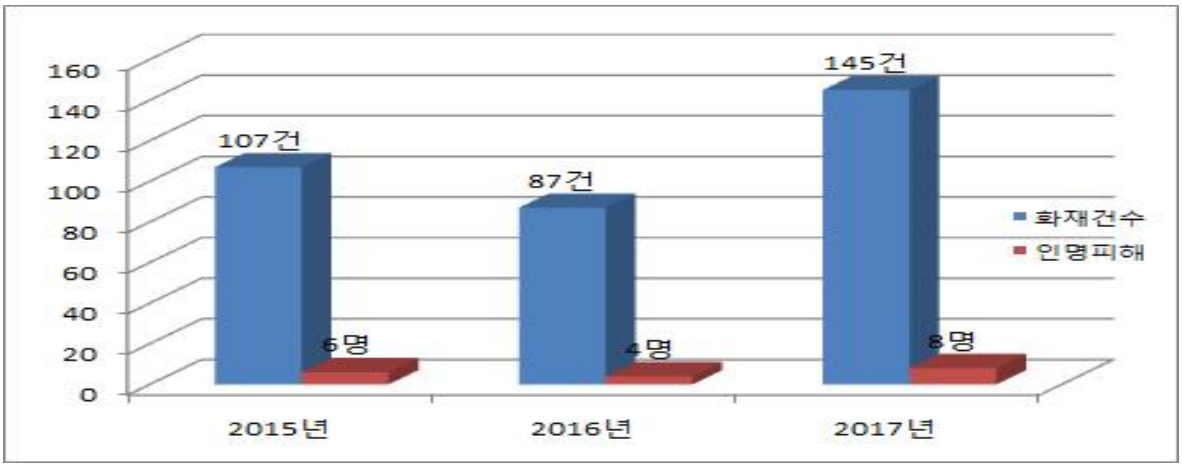
# 1월 주요재난 안전사고 예보

## 동절기 난방기기 화재 주의보 !

□ 본격적인 겨울철 보일러 등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화목보일러와 화목난로의 경우 자체의 과열이나 연통 과열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도배관 등에 열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 최근 3년간('15~'17년) 난방기기 화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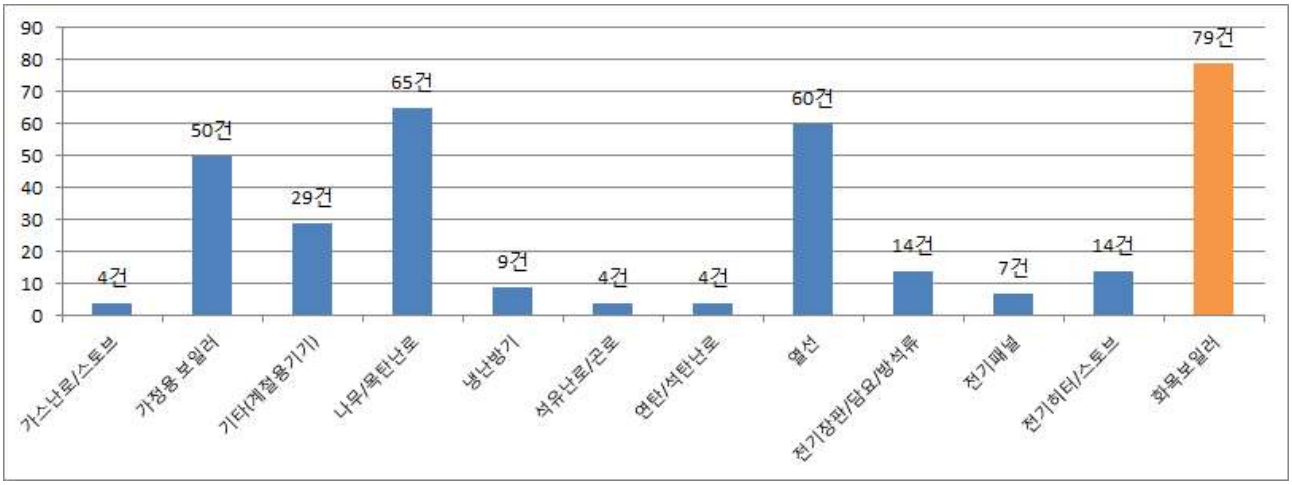



○ <u>최근 3년(2015~2017년)간 총 399건의 화재가 발생</u>하였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 18명(사망1, 부상 17), 재산피해 27억 9천 3백여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 12. 26기준 : 136건

►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201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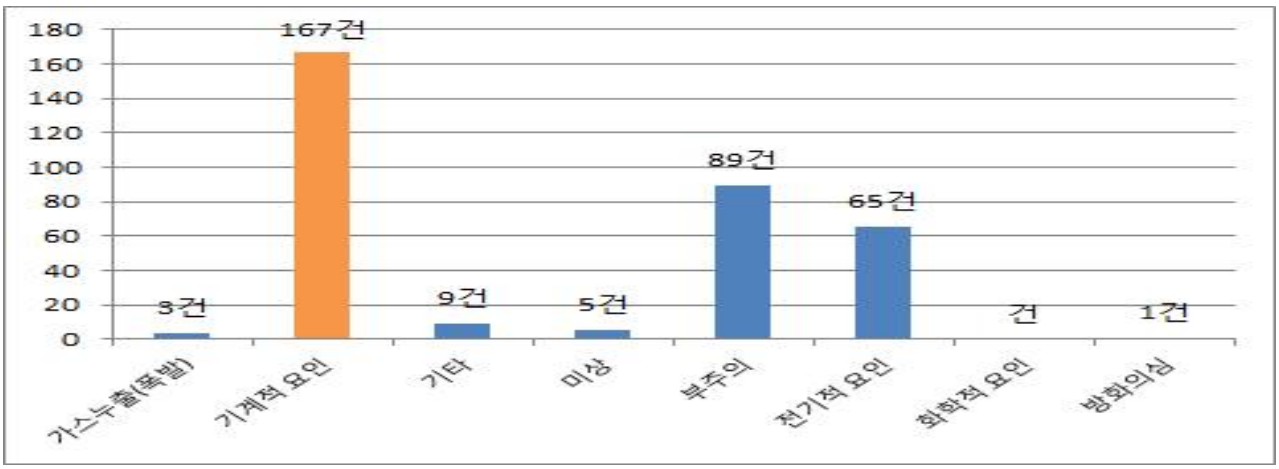
| 구분 | 건수 | 인명피해 | | | 재산피해 (천원) |
|---|---|---|---|---|---|
| | | 소계 | 사망 | 부상 | |
| **계** | **399** | **18** | **1** | **17** | **2,793,601** |
| 2015년 | 107 | 6 | 0 | 6 | 888,800 |
| 2016년 | 87 | 4 | 0 | 4 | 1,115,949 |
| 2017년 | 145 | 8 | 1 | 7 | 788,852 |

## □ 난방기기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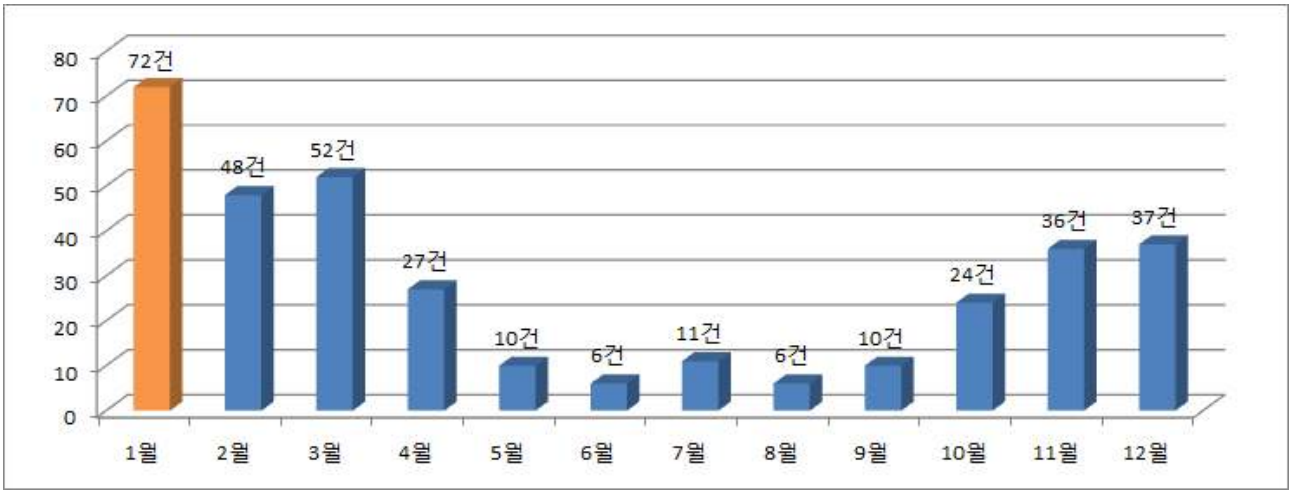

○ 난방기기 별로는 나무를 연료로 하는 화목보일러(난로)가 전체의 23.3%(79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무 목탄 난로 65건, 열선 60건, 가정용 보일러 50건, 기타 계절용 기기 29건 등으로 나타났다.

## □ 원인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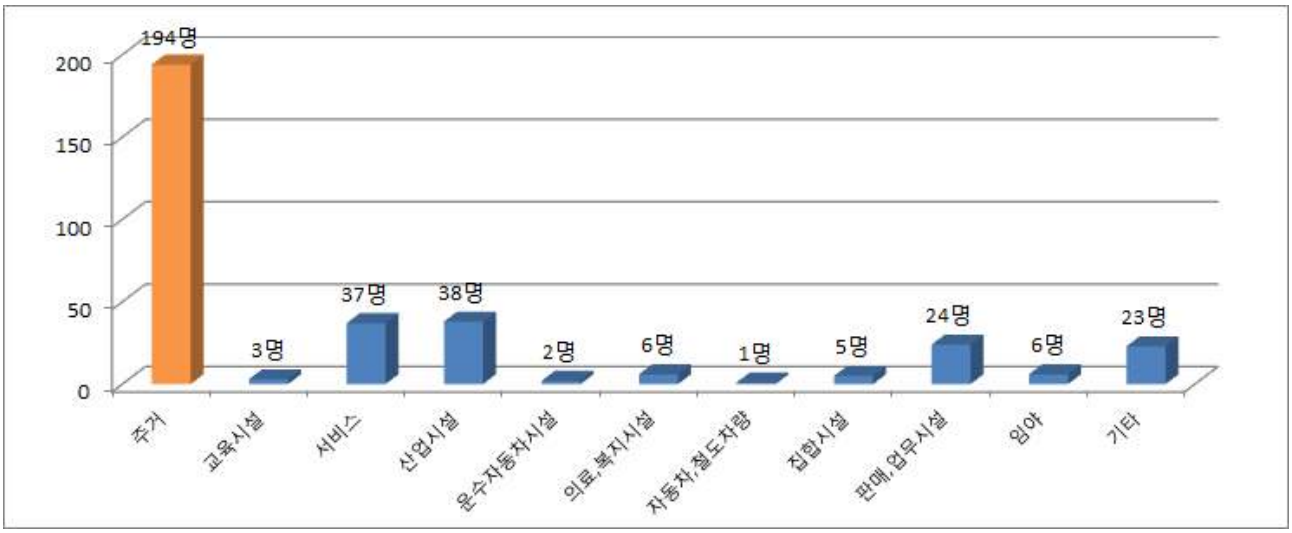

○ 발생 원인을 보면 난방기기의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이 전체의 49.3%(167건) 차지, 특히 자리를 비운 사이 과열되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방기기 주변에 종이 박스나 나무 등 가연물을 방치하거나 수건 등 빨래를 건조하다가 발생하는 부주가 89건, 보일러 내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65건, 가스누출 3건, 기타 9건, 미상 5건 등으로 나타났다.

## □ 월별 현황




○ 월별로 보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월에 급증하여 이듬해 2월까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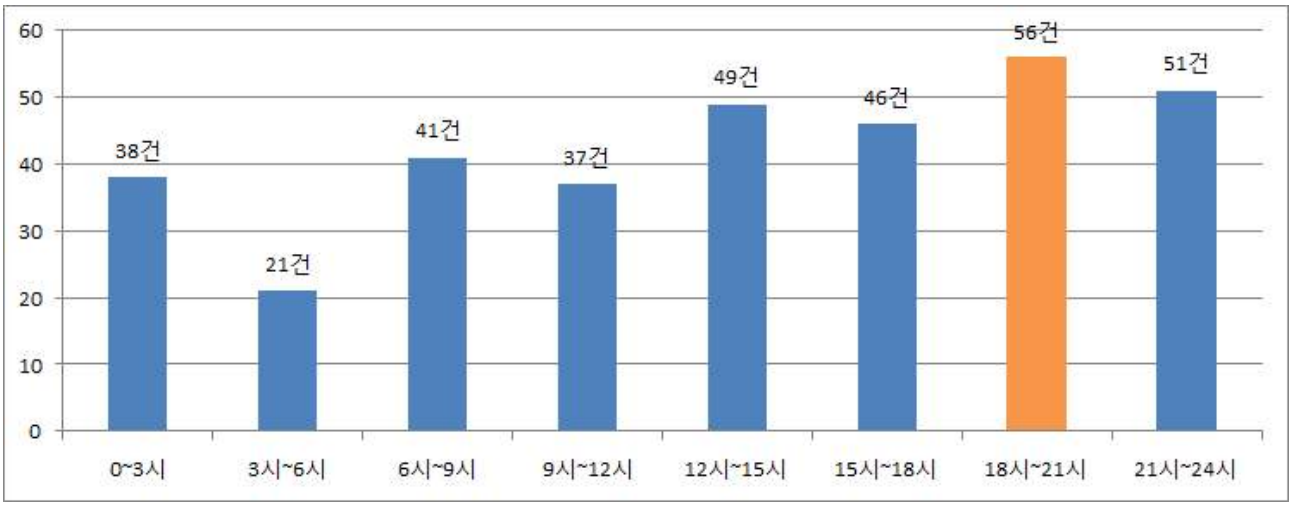
## □ 장소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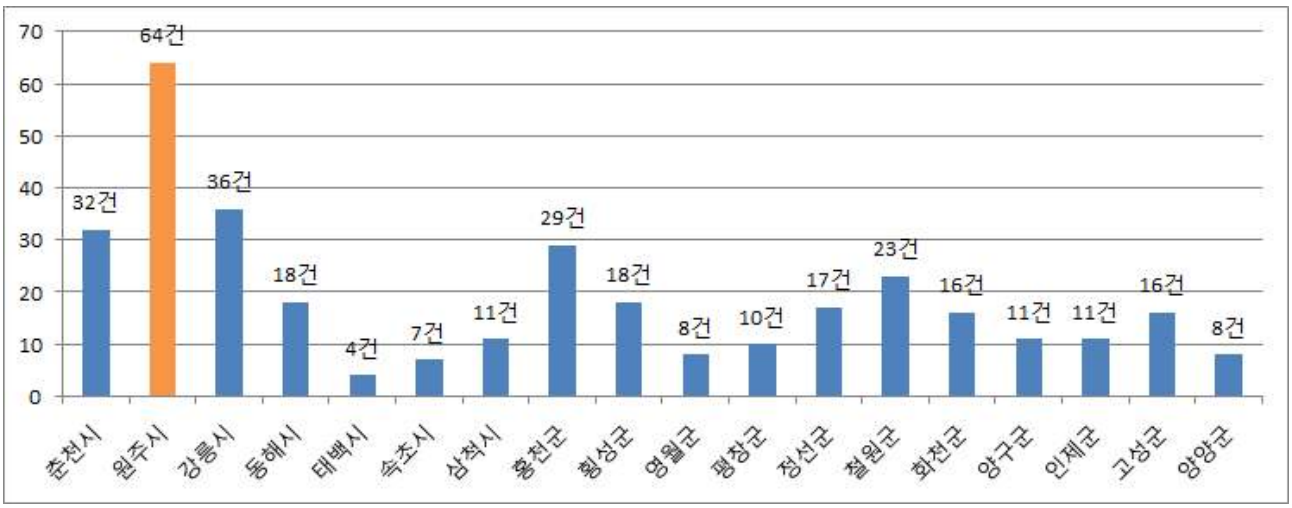

○ 화재발생 장소별로 보면 주택이 57.2%(194건)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11.2%(38건), 서비스시설 10.9%(37건), 판매업무시설 7.1%(24건) 등의 순이었다.

## □ 시간대별 현황

○ 시간대별 현황을 보면 오후 6시~9시 사이가 가장 많은 56건이었고, 이어서 오후 9시~24시까지 51건, 오후 12시~15시까지 49건 등의 순이었다.




## □ 지역별 발생현황




○ 지역별로 보면 원주 64건, 강릉시 36건, 춘천 32건, 홍천 29건, 철원 23건, 횡성과 동해 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주요화재 사례

| |
|---|
| 2018. 12. 23(금) 23:55경 홍천군 남면 / 화목보일러 연통과열 / 주택 2동 전소(82.5㎡) / 22,936천원 재산피해 |
| 2018. 12. 19(수) 02:21경 강릉시 노암동 / 전기장판 과열 / 전기장판 및 침구류 소실 / 906천원의 재산피해 |
| 2018. 12. 13(목) 10:36경 / 인제군 인제읍 / 전기히터 과열 / 벽, 문, 천정 일부 소실(3㎡) / 954천원의 재산피해 |

## □ 화재예방 요령

→ 화목보일러는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두고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이상 높게 설치하고, 보일러 주변 2m 이내에는 연료(땔감)를 두지 말아야 하며, 특히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나무를 넣어 과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또한 불씨가 있는 재를 방치할 경우 바람에 의해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물로 완전히 소화해야 한다.

→ 동파방지용 열선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 시에는 열선을 여러 번 겹쳐 사용하지 말고 간격을 일정하게 감아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 전기장판류는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 시 두꺼운 이불, 요, 라텍스매트 등을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관할 경우에는 열선이 끊어지지 않게 둥글게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온도조절기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격에 주의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꺼두어야 한다.

→ 전기히터는 의류, 커튼, 소파 등 가연성 물질에 근접해 사용할 경우 복사열에 의해 발화되기 때문에 적정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

→ 화재 시 즉시 소화기 가능하도록 난방기기 주변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를 감지하여 알려 줄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하여야 한다.